

大學의 傳統과 나아갈 길

鄭 玉 子

(서울大 國史學科)

우리는 때때로 “이 시대에는 선생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한탄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전통 시대에 있어서 ‘先生’이란 말은 그야말로 자신의 학문적 지주이며, 동시에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분으로 인생의 사표가 되는 분에게만 올리는 경건한 칭호로 일생에 한두 분 정도였다.

주지하다시피 正名思想이 핵심인 유교 사회에서 名分을 가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선생은 先正에 버금가는 칭호였다.

이에 비하여 ‘教授’라는 용어는 그 격이 낮아서 「경국대전」에 보이듯이 吏曹의 吏學教授, 戶曹의 算學教授 등이 있어서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다. 아마도 오늘날의 국립대학 교수가 그 기능이나 직급에 있어 꼭맞아 떨어지고 있다.

오늘날 대학 사회의 문제로서 “교수는 많아도 선생이 없다”는 것은 전통 시대의 ‘교수’의 역할을 명실공히 계승한 교수들의 성실성에 기인하는 것인가?

지난 10여년의 대학사는 그야말로 격동의 역사였고 최루탄의 시대였다. 구토탄이라는 별명대로 울렁거리는 증세에 시달리며 가슴앓이를 앓아 왔고, 항상 콧물이 나서 사람 만나기가 면구스러울 지경이었다.

최루탄 가스 자욱한 강의실에 설라치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얼굴들이 눈물에 가려 아물아물 겹쳐 보이기 일쑤였고, 수업 거부로 텅빈 강의실에 몇몇 학생만이 예의상 지키고 앉아 있는 그 황량한 공간에서 맛 보던 참담한 좌절감과 무력감이 오늘도 생생하게 아프게 되살아 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방향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이는 정치 현실만이 아니라 의식이나 세계관·가치관 등이 기존의 것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학은 방향타를 잡는 조타수의 역할을 포기하고 편협한 아성을 쌓아 올리며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대학이 정치 집단화하여 時流에 편승해서는 더더구나 안 될 일이다.

太學·國學·國子監으로 별칭되던 成均館은 우리 전통 시대의 대학으로 손색이 없었다. 이미

고려 시대에 원초적 모습을 보였고, 조선 시대에 와서 본격화되었다. 태조 7년(1398년) ‘教誨儒生’을 취지로 설립되어 조선 500년의 최고 국립 고등교육 기관이었다. 그 교육 내용은 文·史·哲의 人文敎育으로 儒學이 핵심이었다.

朝鮮의 國學으로 수용된 新儒學인 朱子性理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문적으로 심화되고 16세기 후반 退·栗 단계에 이르면 朝鮮化의 경향마저 띠면서 가장 집요하게 집착한 명제가 心性論이다. 인간의 心性을 우주론인 理氣論에 입각하여 四端·七情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人心·道心으로 설명하기도 하면서 인간의 수양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朱子性理學의 학문 방법인 格物致知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규범의 의미나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道德的 世界觀의 확립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格物은 事物에 대하여 그 이치를 극한까지 탐구하는 것이고, 致知는 나의 지식을 확충하여 완성한다는 것이니 讀書窮理라는 지적 작업을 중시하였다. 格物의 구체적 방법은 「四書集註」 등 경전 공부에 의해 도덕성을 함양하고 「資治通鑑綱目」 등 역사서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是非를 분명히 하며 「朱子家禮」 등 禮書에서 應事接物의 실천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成均館을 고등교육 기관으로 설정한 전통 시대의 교육이란 人慾을 눌러 去慾하는 인간 수양의 인간 교육이며, 物慾으로 인한 인간의 氣品이 타락하는 것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가 관심사였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인간상은 도덕적 실천성을 함양하고 예의를 존중하며 검약과 절제를 아는 德性의 보유자였다. 이러한 교육은 中世 農業社會에 적합한 인간 교육이었지만, 최대 약점은 기술 교육의 경시였다.

19세기 西勢東漸 이후 이러한 인문교육 중심의 교육 체계는 정반대의 과학·기술 교육이 주

류가 되는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우리 사회가 중세 농업 사회에서 근대 상·공업 사회로 전환함으로써 중세 사회의 시대 사상이었던 性理學이 西歐의 實用主義 내지 功利主義로 대체되고 名分社會에서 實利主義 社會로 변화한 결과였다.

더구나 科學·技術을 기초로 한 富國強兵의 논리로 東洋諸國을 위압한 西歐의 帝國主義는 人文敎育 중심의 동양 사회, 아니 조선 사회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그러한 교육에 의거한 文化國家로서의 자부심마저 여지없이 쓸어버렸다.

그 과도기에 知育·德育·體育의 三育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근대 산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은 기능 위주·實利指向의 產業役軍이었고, 近代化가 西歐化·産業化·工業化와 동의어화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증폭되었다.

이제 帝國主義에 의해 편제되었던 東·西 양극 체제의 냉전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세계는 새로운 시대 사상과 그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과도기의 사회적 위기를 해결할 관건은 東·西 兩體制가 즐기치게 추구하고 온 物質主義(資本主義나 共產主義)를 극복하고 人間性의 回復을 전제로 한 인간의 主觀的·倫理的 측면에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이 창안해 낼 수 있는 모든 思想·宗教의 原型은 이미 5·6 세기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知的 資源을 토대로 당 시대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이끌어내어 이론을 심화시키고 부연·설명하여 사용하는 데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찬장에 이미 준비된 재료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양념을 하고 요리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먹다가 싫증이 나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격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신봉하던 이 시대의 물질주의가 한계에 왔다면, 다음의 대응물은 이에 상치되는 가치를 추구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번영을 향한 인간의 욕구는 그칠 줄 모르고 과학·기술 교육의 필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기술·정보·지식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청되는데, 그것은 人文教育의 전통을 살린 人性 교육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앞으로의 대학교육은 과학·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이라는 두개의 수레바퀴를 얼마나 조화롭게 운영하느냐에 그 成敗가 가름날 것이라 생각된다.

세계가 富國強兵·弱肉強食의 제국주의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듯이 개인 역시 利己主義에서 벗어날 시점에 와 있다. 平和共存의 논리나 相扶相助의 원칙은 국가나 개인이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될 것이다. 이제 西歐의 合理主義나 個人主義도 그 한계에 도달한 만큼 지나친 西歐指向의 교육 노선을 재고할 때가 되었다.

또한 대학의 외형적 팽창에 따른 大量教育이 문제로 떠오른다. 교육은 '접촉'이다. 지금의 현실은 학생의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나 개성을 파악하여 인간적 유대를 갖는 일은 교수-학생 쌍방간에 불가능한 일이고 원치도 않는 것 같다. 지식을 팔고 사는 것으로 대학교육은 존재 의의를 갖고, 때로는 그 대량화에 따른 익명성에 안주하며 즐기는 학생도 눈에 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 시대의 徒弟教育이 최선이라는 말은 아니다. 또한 작금의 대학 현실에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徒弟教育은 전통 시대의 그것이 갖고 있던 학문의 직접 전수와 인간적 감화나 치열한 자기 연마라는 긍정적 측면은 格像된 채 師弟間의 功利的 利害關係 위에 설정

된 인간 관계로 利益集團化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량 교육에 따른 大學의 非人間化를 극소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 1인당 학생 몇 명으로 규제화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마이크를 사용하여 행하는 강의 체제는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한다.

維新 이후 제5공화국을 겪으며 대학이 앓고 있는 重病의 원인은 軍部の 武斷統治에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大學의 正體性을 인식하지 못하고 使命感을 외면한 大學人 자신에게 있다. 이 부분은 교수의 지식인으로서의 치열성 부족뿐만 아니라 학생의 그릇된 편향화를 방관하는 무사 안일주의도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大學이 나아가야 할 指向點을 점검해 보자.

첫째, 지나친 西歐指向의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傳統의 創造의 繼承이라는 점에 유의할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 이는 世界秩序의 再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帝國主義에 편승하려는 地域學의 조성 움직임도 경계할 일이다.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되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의 경제적 成就를 하였다고 하여 아프리카나 中南美 또는 中東을 겨냥하여 경제적 제국주의를 꿈꾸는 것은 自家撞着이다. 20세기 전반기에 우리가 겪은 제국주의 피침의 한을 다른 대상에게서 풀어 보려는 몸짓 이상이 아니며, 종국에는 그들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을 합리화시켜 주는 결과가 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우리 자신의 뼈아픈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뒤늦게 제국주의에 편승하여 악순환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平和共存의 대열에 당당히 앞장서는 것이다. 그 새로운 세계 질서의 구축 작업은 世界觀의 재정립 및 價値의 轉換이 요구되고, 그러한 기초는 人

文敎育에 의거한 새로운 時代思想의 創出 위에서
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大學, 특히 人
文敎育이 이루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과학·기술 敎育의 지속적인 확대에 의
하여 自強之道를 구축하고 번영을 추구하되, 그
것을 도덕적·윤리적으로 뒷받침하는 人文敎育
도 강화하여 그 쌍두 마차를 균형있게 달리도록
채찍질하는 일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
해서는 물질적 충족과 함께 정신적 가치의 추구
라는 두 측면이 아울러 강조되어야 하고 大學敎
育에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비판 기능의 강화이다. 우리나라의 지
식인은 전통적으로 현실 참여도와 비판 의식이
강했다. 士林의 淸議나 公論, 成均館 儒生들의
捲堂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이 관료 예비군으로
서 정치 의식이 높았기 때문이다. 현대는 산업
사회여서 다양한 직업 분화와 역할 분담이 이루
어졌다 하더라도 知識人의 대표격인 大學人의 비
판 기능은 우리 사회가 표류할수록 강화되어야
마땅하고, 정치나 사회의 파행성을 지적하여 올
바른 方向性을 제시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저
하지 말아야 하겠다. *